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4.7.3.(수) 09:30	배포	2024.7.2.(화)
담당 부서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총괄팀	책임자	국 장 서재완 (02-3145-7580)
		담당자	팀 장 이동규 (02-3145-757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증권회사 CEO 간담회 개최

I CEO 간담회 개요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7.3.(수) 16개 증권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

증권회사 CEO 간담회 개요

- ☒ 일 시 : '24. 7. 3.(수) 09:30~11:00
- ☒ 장 소 :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 참석자 :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협회장, 16개 증권회사 대표 등 총 24명
 -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 (금융투자협회) 금투협회장, 증권 선물본부장, 자율규제본부장, 산업시장본부장
 - (증권사) 국내증권사(14개사): 미래, NH, 한투, 삼성, KB, 신한, 메리츠, 하나, 키움, 대신, 교보, 한화, 카카오, 토스
외국계증권사(2개사) : 제이피모간, UBS

II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 우리경제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고, 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장기성장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언급
- 이를 위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사회적 충의를 모아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

* (주요과제) 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② 상속세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③ 금투세·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실리콘 밸리식 “Move Fast & Break Things*”가 필요한 시기임을 역설

* 무언가 깨뜨릴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하여 낡은 것을 변화시켜야 함 (페이스북 기업문화를 표현한 핵심가치 중 하나)

□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증권업계의 혁신과 창조의 노력이 필요하며 네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

- **(모험자본 공급)**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 부동산·대체투자 위주의 쏠림투자에서 벗어나 AI·빅데이터 분야 등 혁신기업에 대한 양질의 자금공급을 요청
- **(시장매력도 제고)**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디지털화 등을 통한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하는 한편,
 - 개인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및 제도 개선안이 원활히 안착되도록 CEO의 책임감있는 역할을 당부

-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관행으로 고객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 CEO가 내부통제의 최종책임자로서 업계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 평가와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 시장불안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해 줄 것을 강조

III 참석자 발언 요지 및 향후 계획

- 증권회사 CEO들은 금투세, 밸류업 등 주요 현안이슈와 자본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
- **(금투세 관련)** 최근 금투세와 관련하여 투자자·자본시장·증권 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언급하며,
 - * 1)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
 - 2) 기관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 3)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자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등
 - 다수의 증권사들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여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 이에 대하여 보완이 된 후 시행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밸류업 프로그램)** 증권회사도 상장사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에 솔선하여 참여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 **(기타)**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 ISA 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 건의도 있었음

☞ (붙임) 「증권회사 CEO 발언 요지」 참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업계의 CEO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음

※ (별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주제	CEO 발언요지
금투세 도입 관련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하므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 필요
	예탁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도입시기를 늦출 필요
	현행 금투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과 손익 상계처리 할 수 없으므로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의 과세 부담 증가에 따른 개인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되고,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므로,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같이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 후 시행 필요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24년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제도가 없어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 및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 문제 발생
	소위 수퍼개미들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져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외국인투자자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 존재
	세금 관련 편의성 측면에서 대형증권사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형 증권사는 고객이탈 등 어려움 예상
밸류업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인할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세제지원 방안 필요
	부동산PF 투자 비중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증권회사의 고유한 역할인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업금융 관련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밸류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역할 재정립 필요
	상장기업으로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할 계획
기타	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새로운 사업성 평가 및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중이며,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할 계획
	ISA 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 필요